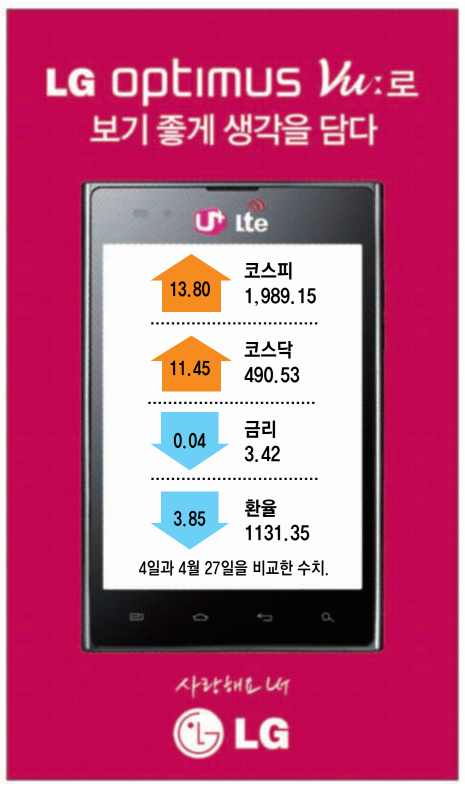


직원 없다, 공장 없다, 나는 글로벌기업이다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이 뜬다 〈上〉 국경 없는 고용

2년 전 당시 28세였던 미국인 조슈아 워런 씨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동갑내기 폴란드인 빅토르 자르카 씨와 크리에이튜이티라는 회사를 차렸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얼굴을 본 건 올해 1월이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e메일과 국제우편, 화상회의가 둘을 이어주는 전부였다.

이 회사의 월 매출액은 약 10만 달러(약 1억1400만 원) 수준이다. 고객 회사는 북미와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각 대륙에 걸쳐 있다. 직원 13명의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다국적기업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인터넷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벌이는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이다.

●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워런 씨와 자르카 씨의 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워런 씨의 집이 있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7명이 일하고 자르카 씨가 있는 폴란드 코닌에서 6명이 일한다. 고객을 찾기 위한 영업은 안 한다. 광고나 마케팅 인력은 물론이고 경리직원조차 없다. 웹사이트 개발자가 직원의 전부다.

얼굴 못본 다른나라 사람과 창업
영업-경리직 등 온라인 아웃소싱
최소한의 핵심역량 인력만 유지

크리에이튜이티는 전형적인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이다. 자신의 핵심역량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적극 외부에 맡기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튜이티는 웹사이트 개발 외의 일은 모두 '오데스크'라는 회사에 맡겼다.

오데스크는 미국 실리콘밸리 레드우드시티에 있는 온라인 인력중개 회사다. 개인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오데스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면 기업들은 이를 보고 일을 맡긴다. 단기간 일거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기업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구하는 프리랜서는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게 된다.

크리에이튜이티는 오데스크를 활용해 고객을 찾고, 광고를 하며, 돈을 정산 받는다. 글로벌 사업이지만 큰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크리에이튜이티의 창업자 워런 씨 자신도 2009년 10월까지만 해도 오데스크를 통해 일을 구하던 프리랜서였다.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시작할 때 15달러이던 시급이 10개월 만에 95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받고도 고객이 줄을 섰지만 워런 씨는 과감하게 프리랜서 일을 포기하고 당시 오데스크에서 자신만큼 잘나가던 개발자 자르카 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 오데스크가 만드는 '국경 없는 일자리'

다양한 기업이 오데스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섬택은 정원사나 배관공이 필요한 집에 출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원은 고작 19명뿐이다. 실제로 일을 하는 배관공이나 정원사는 오데스크에서 구한다. 섬택의 핵심역량은 직접 손으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을 보내주는 능력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NBC, HP 같은 대기업도 오데스크를 통해 단기간 고객 상담원이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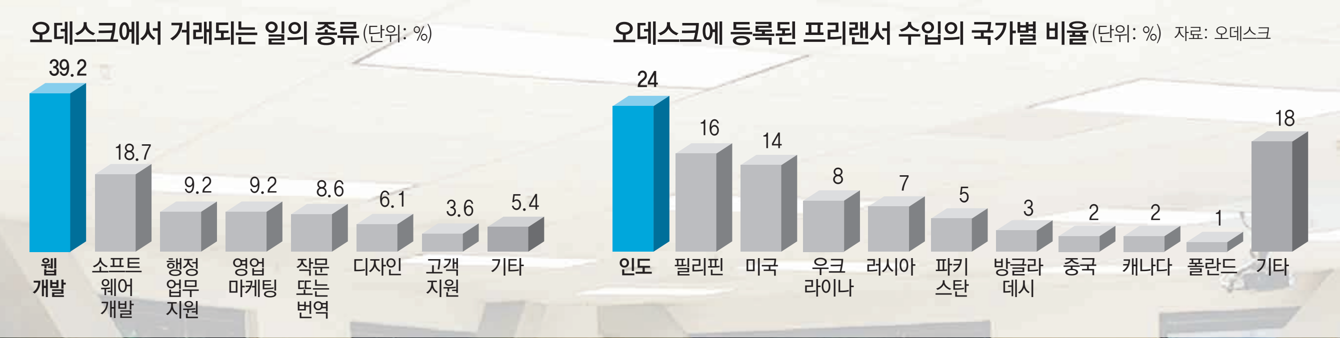
오데스크는 200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성장했다. 지난해 오데스크가 기업고객으로부터 받아 프리랜서들에게 전해 준 임금은 3억 달러(약 3420억 원)를 넘었다. 매월 거래되는 일의 종류만 12만 가지이며 최근에는 마케팅, 회계, 글쓰기 등으로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 하지만 직원은 80여 명에 불과하다. 오데스크 자신도 인력중개 외의 다른 업무는 230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해 해결한다.

레드우드시티=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B4면으로 이어집니다 ➡

? **마이크로 다국적기업 (micro multinationals)**

핵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나머지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는 다국적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이자 구글의 수석경제학자인 할 바리언 교수가 이름 붙였다. 기존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 지사를 두는 등 규모가 컸지만 기술 발전에 힘입어 아주 작은 다국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레드우드시티 오데스크 본사에서 오데스크 직원들이 고객 기업에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는 방법과 미래의 노동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데스크 제공

현대차 임협 가시밭길… 4년 연속 무분규 먹구름

勞, 타임오프제 원상회복 등 제시
사측 수용 어려워 夏鬪 가능성도

10일 시작되는 올해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현행법 위반사항인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원상회복 안을 내는 등 회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안건들을 제시해 현대차의 4년 연속 무분규 달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과 연계지어 '하투(夏鬪)'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말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기본급 대비 8.4% 임금 인상(15만1696원)을 비롯해 별도 요구안으로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0세로 연장, 타임오프제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등 11가지를 회사 측에 제시했다. 요구안만 보면 단체 협상을 무색하게 한다.

현대차는 단체 협상을 겸했던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취업 특혜 요구안'을 제안하는 등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꺼내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해 회사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휴가비, 유류비,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단체상해보험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평균임금이 오르고 퇴직금도 따라 오른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과 같은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줄곧 내려왔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타임오프 원상회복 역시 2010년부터 시행돼 전 산업계에서 정착기를 맞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사측은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올해는 노조 측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때마침 연말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있어 여름부터 현대차 노조가 정치적 투쟁에 나서면 산업계와 정치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7년 결성된 현대차 노조는 창립 이후 26년간 단 4차례(1994년, 2009~2011년)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파업을 벌이며 세를 과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실리적 노선을 걸으며 '연례 파업 노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 9월 강성 노선의 문용문 노조위원장이 당선되면서 노사 관계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기아차 역시 올해 단체협상이 있는 해(이달 말 예정)여서 노조 문제로 현대차그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아파트 관리비 12월부터 동-평형별로 상세히 공개

올해 12월부터는 아파트단지의 동·평형별 관리비가 모두 공개되고 관리비 공개 항목도 세분돼 다른 아파트와 상세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적정한 것인지, 혹시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범위 확대와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 전면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단지별뿐 아니라 동별, 평형별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단지별 관리비만 조회할 수 있어서 동·평형에 따른 관리비 비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관리비 공개 항목 역시 현재 28개에서 48개 항목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린다. 예를 들어 현재 '인건비'로만 나눠지는 항목은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 9개 하위 항목으로 세분된다.

또 주택관리업자나 각종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입찰담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입찰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말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2개월간 시범운용을 거친 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아파트 관리 효율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관리수준 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Inside

B2 대기업 부장출신 4인 구직기

B3 글로벌 기업 보육현장을 가다